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차사의 기능과 의미

- <멩감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

권복순*

《차 례》

1. 서론
2. 여정의 특징
 - 2.1. 단선적 여정
 - 2.2. 복선적 여정
3. 저승차사의 기능
 - 3.1. 삼차사의 욕망
 - 3.2. 강림이의 욕망
4. 저승차사와 죽음의식
5. 결론

〈요약문〉

이 글은 제주도 무속신화 가운데 <멩감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대상으로 저승차사의 기능을 통해 인간의 죽음의식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멩감’과 ‘차사’는 저승 시왕의 명령을 받아 이승에서 정명이 다 된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하위 신격이다.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각 본풀이에서 주인공의 여정은 시간보다 공간의 지배를 받는 특징이 있다. 〈맹감본풀이〉 삼차사들의 여정은 1)저승-2)이승-3)저승의 기본적인 동선을 보이며 단선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 중 경유지인 ‘갈’은 저승차사의 임무를 이탈하는 경유지로서 작용한다. 임무 수행공간인 집은 망자를 잡아가야 하는 공간이지만 시왕맛이의 공간으로 전환한다.

〈차사본풀이〉 강림이의 여정은 공간이동의 횟수가 잦고 복선적인 특징을 보인다. 강림이의 여정이 복선적인 까닭은 이승과 저승 관장으로서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림이 여정의 특징은 경유지에 행기뭇이 있다는 사실이다. 행기뭇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서 강림이의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곳이다.

각 본풀이에서 주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은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차사는 부정한 관원으로 욕망 달성의 실패자이고 강림이는 정직한 관원으로 욕망 달성의 성공자다. 주체와 발신자의 관계로 보면 삼차사는 가치 체계에 어긋난 ‘가짜 주인공’이라 할 수 있고 강림이는 가치 체계에 부합하는 ‘진짜 주인공’이다. 그 결과 부정한 삼차사는 기존의 저승 세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정직한 강림이는 혼란한 이승과 저승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삼차사와 강림이는 여러 모로 대조를 이룬다. 삼차사는 인간적인 면모가 강하고 강림이는 신의 면모가 강하다. 이러한 성격의 이면에는 본풀이의 기능이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시기상 〈차사본풀이〉가 차사라는 신의 근본을 풀이한 설명담이므로 강림이가 차사의 원조격에 해당하고 삼차사는 그 이후의 존재들에 해당한다. 통시적으로 강림이는 저승 세계의 기강이 엄격했던 시기의 존재이고 삼차사는 그 이후 문란한 세태를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강림이의 용맹과 지혜로운 성격은 유혹에 강한 삼차사와 대조된다. 강림이의 형상을 근거로 볼 때 토착신의 모습에다가 중국에서 들어온 전쟁신 관제(關帝)의 모습이 습합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승차사의 기능으로 인간의 죽음 문제를 살펴본 결과 〈맹감본풀이〉에서는 인간 중심의

세속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어 사만이는 살았고 〈차사본풀이〉에서는 신 중심의 초월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어 삼형제는 죽어 환생한다.

주제어: 삼차사, 강림이, 하위신격, 공간의 지배, 실패자, 성공자, 세속적 사고, 초월적 사고

1. 서론

제주도 무속신화인 〈멧감본풀이〉과 〈차사본풀이〉의 주인공인 멧감과 강림이는 차사라는 같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이들은 능력이나 태도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관 및 기능의 수행유·무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난다. 문학이 인간의 상상의 산물인 만큼 이 글에서는 두 본풀이에 나타난 서로 다른 차사의 기능을 통해 인간의 죽음 문제를 풀어 가면서 제주도 무속신화에 반영된 저승관을 밝히고자 한다.

제주도 무속신화에서 저승을 다스리는 신들은 다수 등장하지만 저승차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 두 본풀이뿐이다. 〈멧감본풀이〉에서는 삼차사가 나오고 〈차사본풀이〉에서는 강림이가 나온다. 이 두 무속신화의 본질적인 목적은 서로 다르다. 전자는 의례근거무속신화로서 시왕맞이굿을 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 신화이며, 후자는 일반무속신화로서 차사의 근본을 풀이한 해설담이다. 이렇게 신화의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본풀이에서의 주인공은 ‘멧감’과 ‘차사’로 불리는 차사들이다. 이들의 기능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추상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물음과 답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궐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비문학에서 전승의식이란 곧 세계관을 말하는데 두 본풀이에서 전승자들이 추구하는 의미지향은 인간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다. 즉 〈멧감본풀이〉에 등장하는 사만이는 살았고 〈차사본풀이〉의 삼형제나 동방삭은 모두 죽는

다. 특히 이 중에서 사만이나 삼형제는 삼십이 정명이라는 같은 운명을 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갈림길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대극적인 결과를 맞이한다. 이 연구는 ‘같은 운명을 지닌 두 인물의 삶이 왜 다른가’를 풀고자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의문을 풀어가는 방법론으로 각 본풀이의 주인공인 차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영향력이 인간의 운명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이 두 본풀이는 제주도 <시왕맞이굿>에서 주요 본풀이로 불리고 있는데 <시왕맞이굿>은 제주도 도내에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분포·성행하고 있는 굿으로 그 목적은 집안에 중환자가 있을 때 시왕이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내린 병이라 해석하여 이 질병을 거두고 정명을 늘려 주십사고 기원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 후 사령의 생시 죄보(罪報)를 사하여 극락으로 보내주십사고 기원하는 경우다.¹⁾

두 본풀이가 가창되는 <시왕맞이굿>에서 망자를 위한 청원 대상은 시왕이지만, 각 본풀이에서 인간의 운명에 직접 관여하는 존재는 저승차사들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차사에 주목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논의의 성과는 크게 개별 작품 논의²⁾와 비교문학적 논의를 들 수 있다. 길태숙은 <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에 나오는 악인형 캐릭터에 주목하여 노 일제대귀일의 딸과 과양생의 처의 캐릭터의 이미지를 연구한 바 있다.³⁾ 전

1)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526쪽.

2) 최원오, 「차사본풀이 類型 巫歌의 構造와 意味」, 『한국민속학』29집, 1997, 223-246쪽.

현승환, 「사만이본풀이 研究」, 『白鹿어문』 16, 제주대 사범대 국어교육연구회, 2000, 159-179쪽.

권복순,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난 인물의 기능과 구술적 특징 -〈사만이본풀이〉를 중심으로-」, 『어문학』119, 한국어문학회, 2013, 79-105쪽.

권복순, 「〈차사본풀이〉의 해설적 기능과 의미」, 『배달말』49, 배달말학회, 2011, 301-329쪽.

3)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泐上古典研究』29, 2009, 328-362쪽.

자는 적대자인 녹디생인을 신으로 좌정토록 하기 위한 통과의례의 장치로 기능한다면 후자는 무질서, 혼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성의 상징성을 각각 다른 잣대를 들어 한쪽은 기능면으로 다른 한쪽은 상징성으로 해석한 것도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양생이 처의 이미지를 혼돈이나 무질서로 해석한 것도 표면적인 의미에 천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과양생이 처도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같이 서사에서 인물 기능의 일정한 몫을 담당하며 주인공인 강림이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기여자로서의 몫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강진옥은 〈차사본풀이〉를 〈김치설화〉를 대상⁴⁾으로 서사구조를 비교분석하여 그 의미하는 바를 밝힌 바 있다. 〈차사본풀이〉는 〈김치설화〉에서 ‘김치원님’으로 대변되는 유가적 지배이념을 희화화하는 한편 불교적 세계관을 적극 받아들여 무속적 세계 속에서 재구성함으로써 구조적 층위를 다층화하고 의미의 지향을 다각화하는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김형근은 〈차사본풀이〉가 〈짐가제굿〉에 비해 저승의 신이 되는 과정을 중시한 점을 들어 〈차사본풀이〉의 형성 과정에 제주도굿의 특징들이 반영된 것⁵⁾으로 보았다. 전자는 공식적으로 서사구조를 비교하여 그 형성원리를 찾고자 하였으며 후자는 신화와 제의의 관계에 주목하여 의례선행설의 입장에서 차사본풀이의 형성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두 논의에서 〈차사본풀이〉의 형성원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각각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명’과 ‘정명’이라는 대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인간의 죽음 양상이 각 본풀이에서 차사들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자료는

4) 강진옥,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김치(金糞)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43, 비교민속학회, 2010, 187-225쪽.

5) 김형근, 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차사본풀이〉연구-함흥〈짐가제굿〉 무가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39-271쪽.

서사가 풍부하고 논리가 정연한 안사인본⁶⁾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2. 여정의 특징

각 본풀이에서 인물의 여정은 시공간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두 본풀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시간이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이다. 공간과 시간의 연결 관계는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기술적인 것이다. 모험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그것도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사건들을 지배하는 우연성은 일차적으로는 거리라는 기준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근접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측정되는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모험의 크로토포프는 시간의 연쇄를 구성하는 계기들 사이의 전환가능성 및 공간의 교환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⁷⁾ 이 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인물의 주인공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단선적 여정

단선적 여정이란 저승차사의 임무와 관련할 때 기본적인 동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저승에서 왔다가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저승차사의 임무가 이승에서 수명이 다한 사람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처야 할 여정은 단선적이다. 즉 저승과 이승을 왕복하는 셈인데, 출발지와 종착지는 저승차사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저승이 된다.

6)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7) 미하일 바흐찐 지음,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98, 278-279쪽. 바흐찐은 문학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적 연관을 '크로노토포프(chronotope)'라 하였다. (미하일 바흐찐 지음,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98, 278-279쪽)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차사의 기능과 의미

〈멩감본풀이〉에서도 시간의 기술적 흐름에 따라 공간의 전환 및 교환이 이루어진다.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멩감들의 여정을 화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길 위

- ① 저승 염라왕에 소속된 삼차사가 인간 세상에 내려서서 주년국땅으로 내려오다.
- ② 노상에서 사만이 차린 음식상을 발견하자마자 배고픈 차에 음식을 먹다.
- ③ 삼차사가 사만의 음식을 먹은 것을 후회하다.
- ④ 삼차사가 사만을 잡아가는 임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1차 모의를 하다.

2) 사만의 집

- ① 사만이부부가 바깥에 염랏대를 세워놓고 시왕맛이를 하다.
- ② 염랏대왕에게 대액을 막고자 하다.
- ③ 삼차사에게 황소를 바쳐 방백하려 하다.
- ④ 삼차사가 사만을 잡아가지 못하겠다고 2차 모의를 하다.

3) 저승

- ① 삼차사가 저승으로 가 사만의 저승 장적을 훔쳐보다.
- ② 삼차사가 사만의 정명이 서른셋임을 확인하다.
- ③ 삼차사가 저승장적을 조작하여 사만의 수명을 삼천으로 늘리다.
- ④ 장적을 관리하던 동자판관이 자신의 잘못으로 착각하다.

위에서 드러나듯이 삼차사의 여정은 크게 1)저승-2)이승-3)저승의 세 층위로 나뉜다. 이 때 삼차사가 출발한 지점인 저승은 명시되지 않고 종착지가 출발지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이승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목표 지점을 곧바로 가지 않고 경유지인 길 위에서 멈춘다는 사실이다. 길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데 삼차사의 본분을 잊게 만드는 유혹과 망각의 공간이며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탈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플롯 상 반전 및 긴장, 놀람의 묘미를 안겨주는 전환의 공간이다. 그리고 자아와 세계의 횡포에 맞서 대결함에 있어서 자아의 승리가 예상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삼차사는

인간의 목숨을 빼앗고자 왔으나 도리어 인간인 사만이 미리 계획한 준비에 의해 수세에 몰린다. 삼차사에게는 우연의 사건이지만 실상은 인간인 사만이 만든 인위적인 사건이다. 삼차사가 사만을 잡으러 사만의 집에 들른 현장 또한 의외의 반전이 일어난다. 사만의 집은 삼차사가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곳이었으나 사만이부부가 시왕맞이곳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저승으로 돌아간다.

1)과 2)에서 나타나는 인물과 공간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론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삼차사가 저승 차사로서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저승세계의 금기를 어긴 것이다. 저승차사가 금기를 어긴 대가로, 삼차사와 인간의 관계는 신 우위의 관계에서 인간 우위의 관계로 역전한다.

3)은 1)과 2)에서 금기를 어겨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해결단락이다. 문제를 일으킨 주체도 삼차사이며 문제를 해결한 주체도 삼차사이다. 이 때 삼차사는 문제 제기자인 동시에 문제 해결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 발생이 저승세계 공인으로서 의 신분을 망각하고 금기를 어긴 것에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다. 삼차사는 저승의 동자관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적을 조작하는 비합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한다. 이로써 삼차사는 임무수행을 거짓으로 함으로써 저승법을 혼란하게 한다. 그 결과 단명이던 사만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2.2. 복선적 여정

삼차사의 여정이 단선적인 데 비해 강림이의 여정은 훨씬 복잡하다. 이승과 저승의 왕래횟수도 잦을 뿐만 아니라 삼차사의 공간에서 나타나지 않던 행기못도 나타난다. 강림이의 여정이 삼차사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입체성

을 띤 것은 강림이가 이승의 관장에서 저승 차사로 바뀌는 신분 변화와 관련이 있다. 삼차사와 강림이가 신직 임명을 받은 시점을 견주어보면 시간적인 편차가 크다. <차사본풀이>가 차사의 근본을 풀이한 풀이담이므로 강림이는 차사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삼차사는 강림이 이후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삼차사는 차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며, 강림이는 차사가 되기까지의 영웅적인 활약상과 더불어 차사의 신직을 받기 위한 예비차사로서의 과정에 치우쳐 있다. 그러므로 강림이의 여정은 차사로서 신직을 수행하는 삼차사와 달리 능력 검증을 위한 통과의례의 절차로서 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간을 중심으로 강림이 여정의 서사 단락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I.

1) 길 위

- ① 강림이가 저승 가는 길을 몰라 해매다가 청태산 마구할망을 발견하다.
- ② 강림이가 큰부인 말대로 청태산 마구 할망에게 점심을 나누어주니 할망이 일흔 여덟 갈림 길에서 노인을 만나라고 하다.
- ③ 청태산 마구할망은 강림이에게 자신을 큰부인집의 조왕 할망이라 하다.
- ④ 강림이가 갈림길에서 해매다가 늙은 할아버지를 만나다.
- ⑤ 강림이가 큰부인 말대로 늙은 할아버지에게 점심을 나누어주니 일흔 여덟 길을 다 세라 하다.
- ⑥ 늙은 할아버지는 자신이 큰부인 집 일문전이라 하다.
- ⑦ 강림이가 갈림길을 다 세니 문전신은 저승다리를 보수하는 길나장을 만날 것이라 하다.
- ⑧ 강림이가 길보수꾼을 만나 길보수꾼에게 떡을 주니 저승 가기 전의 행기 못의 위치를 알려주다.
- ⑨ 강림이가 큰부인이 준 저승증표를 털어 삼훈이 되자 이원사자는 삼훈을 통과시키다.

2) 행기못

- ① 강림이가 행기못에서 저승 못 간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애원하는 것을 뿌리치고 행기못으로 들어가다.

3) 저승

- ① 강림이가 저승에서 강림이의 위용에 놀려 꼼짝 못하는 염라왕을 대번에 사로잡다.
- ② 강림이는 염라왕이 말뚝장자집의 전세남굿을 받아먹자고 애원하는 바람에 같이 가다.
- ③ 강림이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동안 잡아둔 염라왕이 사라지다.
- ④ 강림이는 조왕할망의 도움으로 새로 환생한 염라왕을 찾아내다.
- ⑤ 강림이가 이승으로 오겠다는 염라왕의 약속을 받아내다.

4) 행기못

- ⑥ 강림이는 염라왕이 준 백강아지의 인도로 행기못으로 나오다.

5) 이승

- ① 강림이가 이승에 오니 큰부인은 그가 죽은 줄 알고 3년상을 지내고 첫제사를 지내다.
- ② 강림이가 저승의 사흘이 이승의 3년에 해당함을 알게 되다.
- ③ 강림이는 염라왕을 잡아오지 않았다는 죄로 김치원님에 의해 하옥당하다.
- ④ 염라왕은 강림이와 한 약속을 지켜 이승에 와서 김치원님을 만나다.
- ⑤ 염라왕은 과양생이 부부가 김치원님에게 소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 ⑥ 염라왕은 삼형제와 과양생이 부부를 이승에서의 업보대로 모기로 환생하게 하다.
- ⑦ 김치원님과 염라왕은 강림이를 두고 서로 갖겠다고 다투다.
- ⑧ 김치원님이 강림이의 육신을 가지겠다고 하니 염라왕은 강림이의 삼혼을 가지다.

II

6) 저승

- ① 강림이는 염라왕이 이승에 가서 여자는 70, 남자는 80을 정명으로 적패지를 붙이고 오라는 분부를 받다.
- ② 오는 도중 까마귀를 만나 함께 동행하다.

7) 이승

- ① 강림이가 까마귀에게 적패지를 맡기니 까마귀가 앞날개에 적패지를 붙이다.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차사의 기능과 의미

② 백정이 까마귀를 쫓아서 적패지가 떨어지는 바람에 인간은 순서없이 죽음을 맞게 되다.

③ 강림이가 까마귀의 죄를 물어 아랫도리를 곤장으로 치다.

8) 저승

① 염라왕이 강림이에게 동방삭을 잡아오라는 분부를 하다.

9) 이승

① 강림이가 이승으로 와 계교로 3천년을 산 동방삭을 잡아오다.

10) 저승

① 염라왕은 강림이를 인간차사로 임명하다.

강림이의 여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와 같이 10번의 이동을 하고 있다. 이 공간은 층위별 이승과 저승 그리고 행기못으로 묶을 수 있다. 행기못⁸⁾은 저승 초군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는 곳으로 저승으로 가지 못한 혼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행기못을 경계로 강림이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저승에서 이승으로 수차례의 왕복을 거듭하며 마지막으로 저승에 안착한다.

강림이의 여정이 삼차사의 여정과 다른 까닭은 그의 캐릭터가 입체적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I과 II는 강림이의 이야기지만 서로 독립적인 삽화다. I은 이승관장 강림이의 이야기이고 II는 저승차사 강림이의 이야기이다. 이승 관장인 강림이의 특징은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잡아올 만큼 용맹이 뛰어난 점을 들 수 있으며, 저승차사로서의 강림이는 용맹보다는 지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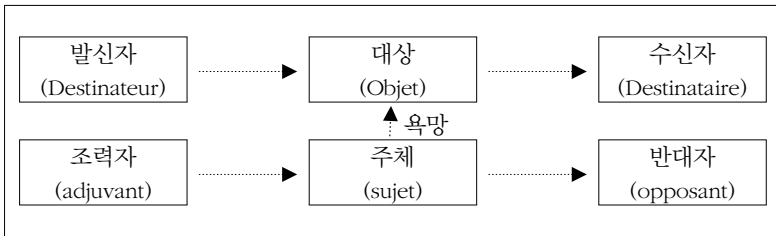
8) 제주도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가정하면 행기못은 밑빠진 못이 될 것이고 그 물은 바닷물에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선문대할망이 물의 깊이를 시험하다가 마지막에 한라산 중턱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더니 그만 빠져 죽어 버렸다. 물장오리 물이 창 터진 물(밑이 빠진 물)인 죽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86쪽)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섬의 여건상 사람들의 주생업은 어업일 것이며 그들의 생사는 물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뛰어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강림이가 이승의 관원으로 저승에서 용맹성을 보여준 것이 염라왕에게 발탁된 이유이다. 염라왕은 강림이에게 통과의례의 절차로 동방삭을 잡아오게 한다. 이에 강림이는 이전의 저승차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지혜로 해결하여 혼란했던 저승 세계를 바로잡는다.

3. 저승차사의 기능

인물의 기능⁹⁾은 서사문학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서사문학은 인물들의 행위를 통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주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인물의 기능은 주체를 중심으로 서로 기능이 다른 인물들과 긴밀하게 얽혀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두 본풀이의 주체와 욕망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의미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¹⁰⁾

9) 구조주의 서사학자인 그레마스는 <구조 의미론>에서 이야기에 보편적으로 6개의 배역이 나타난다고 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류수열 외, 『스토리텔링의 이해』, 글누림, 2007, 172쪽)



10) 구조주의 이론의 대표적 학자로 프로프와 레바-스트로스, 그레마스가 있다. 프로프는 러시아 동화를 대상으로 모든 이야기에서 31개의 기본적인 ‘기능들’(function) 들로 묶을 수 있음을 밝히고 하나의 기능은 서술적 ‘언어’의 기본단위로서 서술(이야기)를 구성하는 논리적 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에 반해 레바-스트로스는 프로프의 서술 순서보다는 신화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구조적 패턴에 관심이 있다. 그레마스는 프로프의 이론을 세련시키고 간소화하였는데 프로프가 하나의 장르에만 초점을 맞춘 데 비해, 그레마스는 이야기(서술)에 문장구조의 의미론적 분석을 가함으로써 일반 ‘문법’에까지 나아간다. (이선영,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3.1. 삼차사의 욕망

삼차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욕망의 대상, 즉 목표는 삼차사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저승 염라왕에 소속된 관원으로서 수명이 다한 인간을 저승으로 데리고 오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수행해야 할 욕망의 도달점은 저승차사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차사는 인세에 가서 사만이를 잡아오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이다. 그런데 삼차사의 욕망 탐색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며 길이라는 추상적인 장소에서 일어난다. 삼차사들은 길 위에서 겪은 우연의 사건으로 인해 저승법을 무질서하게 만든다.

삼차사들은 이승에 도착하자마자 뜻하지 않게 배가 고픈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욕구가 일어난다. 그들은 차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린 채 욕구에 못 이겨 본능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 직면한다. 서사에서 우연의 특수성과 구체성의 정도는 필연적으로 제한된다. 구체화는 모험의 자유와 유연성을 구속하고 우연이 지니는 절대적인 힘을 제한하기 때문이다.¹¹⁾ 삼차사는 억압된 내면의 그림자가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저승법을 수행해야만 외적 인격인 페르조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진다.¹²⁾

“야 난데없이 시장끼가 한이 없구나.”

남은 두 차사가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황차사가 말을 하되,

“어찌 사람의 거처가 없고 주인없는 빈 땅인 이 노상에 향을 피우는 냄새가 납니다.”

2001, 187-189쪽)

11) 바흐찐, 위의 책, 279-280쪽.

12) 용은 집단적인 가치규범을 토대로 한 행동양식으로 외적 인격, 또는 페르조나(persona)라 하고, 외적 인격에 대응하는 내적 인격의 요소로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자아콤플렉스의 무의식면으로 무의식에 억압된 열등한 또 하나의 인격이라 하였다.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분석심리학적 접근-』, 집문당, 1995, 15-16쪽)

천황차사가,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삼차사가 가서보니, 쪽지병풍에 비자나무 껍상을 차려 세워서 맑은 음식은 단정하게 차려 놓고 있으니, 삼차사가 배고픈 김에 청감주, 계란안주를 하나씩 먹었더니 시장끼가 가신 듯하여

“아, 이거 산이라도 넘고 물이라도 넘겠습니다.”

천황차사가 보려고 아니했는데, 제상 아래를 바라보니, 사만이 이름 삼자가 백지에 쓰여붙여 있구나.

“야, 지황차사, 인황차사님아, 이거 큰일났습니다.”

삼차사가 길 위에서 나타난 본능의 유혹은 애초에 그들이 계획하던 일과 거리가 멀다. 본능의 욕구가 발현함에 따라 삼차사는 음식상을 발견하자마자 음식의 유혹에 넘어간다. 뒤이어 그들은 무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식 상태로 돌아오지만, 자신들이 완수해야 할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혔음을 자각하기에 이르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태이다.

삼차사가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으로 방해한 인물은 사만이이다. 이 때 사만이는 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자에 해당한다. 주체는 서사문학에서 '욕망의 대상을 찾아나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가치있는 대상을 찾아나서는 주인공이다. 주체와 대상은 욕망의 관계로 정의¹³⁾될 때, 삼차사를 주체로 볼 경우 삼차사의 욕망은 인간과 대치가 된다. 인간에게 죽음이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때 주체 대 객체의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놓인다. 인간은 저승 세계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나 사만이는 꿈에 나타난 백발노인의 도움으로 방약할 방법을 알게 됨에 따라 시왕맞이굿을 하여 그 액운에서 벗어난다. 이로써 삼차사 대 사만이의 관계는 신 우위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인간 중심의 관계로 변화한다. 주체인 삼차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만이는 저승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고 삼차사는 저승법을 파괴하는 장본

13) 류수열 외, 위의 책, 173쪽.

인이 되는 셈이다. 이로써 차사 대 인간, 신대 인간의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다.

제주도 큰 곳의 제차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순서로 청신의례를 한다. 청신의례는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초감제>를 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려오게 한다. 그 다음 <초신맛이>를 하여 재차 미참한 신들을 전부 하강시킨 다음 오리 밖까지 가서 신들을 맞이하여 제창 안으로 모셔 들인다. 이를 줄여 오리정 신청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초상제>를 하는데 이때는 심방이 앉아서 최고신부터 하위신까지 장고를 치면서 아직도 미참한 신들이 있는지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여 제상에 좌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신들을 좌정시킨 후에는 신들이 제장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오방각기’란 지장을 오려 오방에 붙이고 신을 제장 안에 가두어 놓는다.¹⁴⁾

사만이가 시왕맛이굿¹⁵⁾을 하기 전에 집 밖에 나가 신들을 모시는 행위는 실제 곳에서도 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큰 곳을 할 때 <초감제>에서는 하늘에 있는 신들을 모두 내려오게 하고 <초신맛이>를 할 때 미참한 신들을 모시는데 신들의 위계상 저승차사가 일반신들과 제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한 연유는 <차사본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때에 염라왕이 말을 하되,

“강림이야, 화를 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아래쪽 말갯장자집의 전새남굿을 받아 먹고 인간 세상에 가는 것이 어떠냐?”

“어서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자부장집 먼 올래에 가 보니, 심방이 흥포관대에 조심띠를 매고 시왕맛이 오리

14)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 자료집-』, 칠머리당보존회, 1998, 63쪽.

15) 시왕이 인간의 생사권을 관리한다는 사고와 달리 고대인은 인간의 운명이 하늘에 달려 있다고 여겨 특별한 별자리의 신이 삶과 죽음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였다. 고구려 고분변화에는 남두성과 북두성이 그려져 있고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노인성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정재서, 『이야기 동양신화』, 감영사, 2010, 177쪽)

정 신청계를 하다가 ‘모든 신주는 다 살려옵서.’하고 강림이는 ‘살려옵서.’ 아니 하니 심방을 사신 결박하여 제석궁 신자리에서 파릿파릿 죽여가니, 똑똑하고 역력한 당클 아래 제석궁 신소무는 오리정 대령상을 내놓아,
“살아있는 차사도 차사입니다. 우리 인간 강림차사도 저승을 가서 염라왕과 같이 내려오는 듯합니다. 강림차사도 오십시오.”
죽어가던 심방이 파릿파릿 살아났다. 그 때에 낸 법으로 시왕당을 아래 사자상을 차려 큰 시루떡을 저 올리는 법입니다.

〈시왕맞이굿〉을 할 때 사자상을 차리는 연유담이다. 그렇다면 실제 굿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에 열린 동북 시왕맞이굿의 제자배치는 제물진설, 신자리, 연물석, 본주와 가족들의 자리를 배치하고 초감제를 이어 시왕맞이에서는 초감제의 제물진설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신자리 오른쪽 기존 연물석에 시왕맞이와 관련한 양사돈육마을상(정씨, 김씨)과 차사상을 마련하였다.¹⁶⁾ 이로써 현재의 굿에서도 사자상이 차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차사는 인간이 바친 제물을 먹은 바람에 애초에 목적했던 차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일은 앞서 일어났던 우연적 사건과 이어지는 연쇄적 반응이다. 삼차사는 인간이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은 탓에, 사만이를 잡아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삼차사는 차사직을 수행하지 못한 실패자에 해당한다.

3.2. 강림이의 욕망

강림이가 성취해야 할 욕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승 관장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저승 차사의 역할이다. 결론적으로 강림이는 이 두 역할을 성취함으로써 욕망의 성취에 있어서 성공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6) 강정식·강소정·송정희 저,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27쪽.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차사의 기능과 의미

(이승관장의 임무)

- 1) 소지의 문제: 과양생이의 아들 삼형제가 한 날 한시에 죽은 연유
- 2) 소지의 해결: 방법: 강림이가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잡아와야 함
- 3) 소지의 해결: 염라왕이 이승에 와서 삼형제 죽음의 실상을 보여줌
- 4) 수행 결과: 강림이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삼형제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게 됨

강림이가 이승 관장으로서 저승에 가서 임무 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조력자의 도움이 컸다. 삼차사에게 조력자가 없고 오히려 반대자의 기능이 우세한 반면, 강림이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조력자의 기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조왕할망¹⁷⁾, 문전신, 길나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강림이가 이승의 관장으로 저승에 간 이유는 염라왕을 잡아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염라왕이 이승에 와야 하는 이유는 과양생이가 김치 원님에게 소지한 삼형제가 한 날 한 시에 죽은 죽음의 의문을 풀고자 하는 데에 있다. 삼차사가 가는 길에 우연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한 것과 달리, 강림이는 큰부인이 미리 계획을 함에 따라 조왕신, 문전신, 길나장 등의 도움을 받아 임무를 완수한다.

강림이가 염라왕을 잡아온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강림이가 저승에 간 것은 이승 관장인 김치 원님의 명령에 의해서이다. 김치 원님은 이승 세계를 다스리는 인물로서 과양생이 처가 올린 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강림이로 하여금 염라왕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른다. 강림이는 염라왕을 이승으로 오게 함으로써 삼형제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된다.

17) 이수광의 《芝峯類設》에 이르기를, 남아가 헌작(獻爵)함에 여이는 피한다 하였고, 패사(稗史)에 이르기를 조제(竈祭)에는 반드시 부인이 피한다 하고, 또 조신(竈神)은 항상 월회(月陰)에 상천(上天)하며 기축일 묘시에 상천(上天)하는데 이날 제사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한다. 이조 중기에 들어서 다수의 반상(班常)이 조왕에 제사했다. (이능화, 『朝鮮巫俗考』, 집문당, 1991, 220쪽)

〈저승차사의 임무〉

- 1) 문제 제기: 염라왕이 강림이에게 동방삭을 잡아오라고 명령함
- 2) 문제 해결: 방법: 강림이가 우연을 가장하여 동방삭을 유혹
- 3) 문제 해결: 강림이가 동방삭을 잡아 염라왕에게 바침
- 4) 수행 결과: 염라왕이 강림이를 인간 차사로 임명함

저승차사로서 역할을 할 때 강림이는 조력자 도움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임무를 완수한다. 이 때 강림이의 대결 상대는 동방삭이다. 동방삭은 이제껏 저승법을 혼란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인간은 누구나 정명이 되면 저승으로 가야 하는데 인간인 동방삭은 이 법을 피해 산 인물이다.¹⁸⁾ 염라왕은 강림이를 시험하기 위해 동방삭을 잡아오라는 난제를 준다. 강림이는 기존의 차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차사가 되는 욕망을 성취한다.

4. 저승차사와 죽음의식

죽음은 인간의 문제인 동시에 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앞 장에서 각 본풀이의 주체인 저승차사들의 욕망의 성취 유·무를 비교해 본 결과 서로 대극적인 결말이 나타났다. 즉 주체인 삼차사들은 욕망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강림이는 욕망을 달성한 존재이다. 이와 같은 대극적인 저승 차사의 기능과

18) 충남 서산 지역에서 망인의 저승길을 닦아줄 때 부르는 巫經인 『황천해원풀이』에서도 강림이의 위용은다저승차사와 다른 면모를 보인다. “모생이 수명이 다 된 것을 알고 시왕은 저승사자들을 불러 이승으로 모생을 잡아오라 하였다. 모생을 잡아 가려 하나 가신들이 가로막자 사자들이 시왕의 서찰을 내어보이니 잡아가도록 허락한다. 가신들의 허락을 받은 사자들 중 저승사자들은 문 밖에 서 있고, 이승사자인 강림도령만이 영문안에 들어섰다. 강림도령은 팔뚝같은 쇠사슬로 모생의 실날같은 목을 묶어매고 철퇴로 두드리니 모생의 혼(魂)이 사신에서 분리되었다.”(김태곤, 『韓國의 巫俗神話』, 집문당, 1985, 256쪽)

욕망의 성취유·무는 인간의 죽음의식을 크게 두 방향으로 해석할 근거를 제시한다.

주인공이 이르고자 하는 목표가 욕망의 대상(objet)이라고 할 때 삼차사는 사만이를 잡아오는 것이 욕망의 성취이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실패한 존재에 해당한다. 반면 강림이는 이승의 관장으로 저승에 있는 염라 대왕을 잡아와 삼형제가 죽은 의문을 밝혀내고 이어 저승에 가서 염라왕이 동방삭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간 차사직을 수여 받는다. 즉 〈땡감본풀이〉에서 삼차사는 임무 태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저승의 장적을 조작하기에 이르렀고, 강림이는 자신의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해 냈다. 이와 같이 같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식 및 능력 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 두 차사의 성격은 인간의 죽음에 각각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승차사는 망자를 저승으로 잡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서 실상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힘이 없는 하위 신격이다. 그러므로 사자상도 시왕¹⁹⁾ 당클 아래 위치한다. 지위 상 어디까지나 발신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발신자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가치 체계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발신자는 어떤 가치체계에 입각해서 주체를 탐색의 길로 인도하고 그의 행동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진짜 주인공과 가짜 주인공이 판별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이 배분된다. 진짜 주인공이란 발신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자가 되고 가짜 주인공이란 그에 반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²⁰⁾

발신자의 가치기준을 중심으로 보면 〈땡감본풀이〉의 삼차사는 가짜 주인공이 되는 셈이고 〈차사본풀이〉의 주인공인 강림이는 진짜 주인공이라 할

19) 원래 무속에서 저승 관념은 매우 막연한 것이었으나 불교의 지옥과 극락 세계가 도입되면서 무속의 세계관 구성에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저승의 시왕이 들어 오면서 우리 무속의 저승관이 체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윤리적인 선악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524쪽)

20) 류수열 외, 『스토리텔링의 이해』, 글누림, 2007, 173쪽.

수 있다. 삼차사는 염라왕에 소속된 관원이지만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관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저승세계를 혼란하게 만든 장본인이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목숨을 연명해주는 조력자가 되는 셈이다.

반면 발신자와 주체의 측면에서 강림이는 발신자의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존재이다. 이승에 있을 때에 강림이는 김치원님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인정을 받는다. 또한 저승 염라왕의 소속으로 있을 때에도 난제를 풀어 염라왕의 보상을 받는다. 강림이는 삼차사가 장적을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저승법을 어긴 것과 달리, 비범한 능력으로 저승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왕까지 잡아온다. 이렇듯 삼차사와 강림이의 위상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반면 혼백이 된 강림이는 염라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차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강림이의 정체성은 입체적이다. 강림이의 정체성을 살피기 위해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잡는 장면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육신은 봉황눈을 부릅뜨고 삼각수를 거스르고 청동같은 팔뚝을 걷어 동곳 같은 팔 주먹을 내놓고 우레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한번을 펼쩍 뛰어 매어치니 삼만 관속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 번을 매어치니 육방하인이 사라지고, 세 번째는 가마채를 잡아 흔들면서 가마 문을 열어보니 염라왕도 두 주먹을 쥐고 앉아 발발 떨고 있습니다.

위에서 강림이의 형상 중에 ‘봉황눈’, ‘삼각수’ ‘청동같은 팔뚝’과 같은 화소가 눈에 띈다. 미루어보아 강림이의 정체는 전내계급의 신령에 속하는 관성제군의 모습이 겹친다. 관성제군은 줄임말로 관제니 관성의 칭호로 불리며 관우 또는 관운장이 본래 이름이다. 이 신은 중국에서 유래된 신령들로 전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성제군은 전내계급의 신령으로 닛대신 계급의 신령인 십대왕이나 사자보다 위계상으로 상위에 있는 신령이다.²¹⁾

21)1) 선관 및 보살계급의 신령: 옥황천존, 일월성진, 칠원성군, 산신, 사해용왕,

이 장면에서 강림이와 염라왕의 위계질서는 관장과 저승왕이라는 수직적인 위계질서보다 능력이 우선시 된다. 대결 결과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왕이 수세에 몰리고 인세에서 간 강림이가 우세하여 실질적인 지배자의 모습을 보인다. 한국 무(巫)안에서 신령의 위계는 어떠한 계급에 속한 신령의 우세를 통해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조선왕조의 사회 신분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하늘신, 땅신, 바다신은 서열로 보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이 위계 안에서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중국에 그 유래를 둔 신령들이 토착신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왜냐하면 저 위력있는 중국의 전쟁신, 관제(關帝), 또는 관운장에 대한 믿음은 일본군이 퇴각하자 왕가를 포함한 왕가를 포함한 사회 지배층 사이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관제가 그들에 의해 그토록 열렬히 섬겨지자 무당으로서의 그 전쟁신 및 그와 연관을 맺고 있는 신령들을 그들의 토착신보다 우위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²²⁾

또한 강림이가 삼차사보다 비범성이나 능력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같은 차사지만 강림이는 토착신과 전쟁신의 모습이 습합되어 있어서 더 강력한 신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면모로 인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 질서를 구축하는 신의 위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멩감 본풀이>의 주인공인 삼차사에게서는 그러한 면모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같은 신이지만 삼차사는 신이라기보다 인간의 모습에 가깝다. 강림의 용맹성이나 지혜로운 모습에 비해 즉흥적이며 폐쇄적인 모습

삼신제석, 뇌공신장, 기도대신, 부처님, 신중

- 2) 전내계급의 신령: 관성계군, 소열황제, 장장군, 와룡선생, 옥천대사, 오호대장 등
- 3) 박수, 만신 계급의 신령: 최영장군, 별상, 군웅, 창부씨, 삼대신, 십이대신, 태조대왕, 대감, 호구별성마마
- 4) 뒷전무당계급의 신령: 걸립, 말명, 맹인신장, 성황, 사신
- 5) 뉘대신 계급의 신령: 십대왕, 사자, 뉘대신
(조홍윤, 『한국의 무』, 정음사, 1983, 95-101쪽)
- 22) 조홍윤, 위의 책, 102쪽.

을 보인다.

무속에서 시왕이나 차사를 모시는 무당은 뉘무당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주로 초상과 관련된 곳을 일을 도맡아하는데 뒷전무당의 신령이나 뉘대신 계급의 신령들은 낮은 계급을 받는다. 그 이유는 뒷전무당이 곳의 중심자리에 끼지 못하고 오로지 뒷전거리만 놀아야 하기 때문이고 뉘무당의 경우 하는 일이 주로 죽음에 관련된 곳은 일이기 때문이다.²³⁾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승신들의 입장과 대치된다. 특히 인간이 죽음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강림이와 같은 위력적인 신보다는 삼차사와 같은 인간적인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²⁴⁾

신계의 질서가 문란하여 있는 <멩감본풀이>에서 삼차사가 저승차사라는 임무를 게을리하여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었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의 현세주의적 사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신계의 기강이 확립되어 있는 <차사본풀이>에서는 강림이가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신중심의 내세관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운명은 신이 정해주는 것이며 그 법에 따라 정명이 되면 죽어야 하고 죽은 이후의 내세의 삶도 신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유관이 내재되어 있다.

5. 결론

23) 조홍윤, 위의 책, 100-102쪽.

24) 저승신화의 하위유형을 ‘이계여행형’ 무가와 ‘치성차사형’ 무가로 나누고 전자의 무가에는 <천지왕본풀이>, <바리공주>, <차사본풀이>가 있는데 이승의 한 인물이 저승을 여행하고, 그 여행에서 인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거나 조력해준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고 하였다. ‘치성차사형’ 무가에는 ‘백년해골형’ 무가, <장자풀이> <짐가제굿>이 있는데 저승신을 위하여 자신의 위기를 모면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와 의미』,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이 글은 제주도 무속신화 가운데 〈멩감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대상으로 하여 각 신화의 주인공인 저승차사의 기능에 주목하여 인간의 죽음 문제에 관한 의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멩감과 차사는 신분상의 용어로 이들의 임무는 정명이 다 된 이승사람들을 저승으로 인도해가는 하위 신격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주체로 여정 및 주체의 욕망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각 본풀이의 여정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점으로 시간이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멩감본풀이〉에서 삼차사들의 여정은 1)저승-2)이승-3)저승의 세 층위로 나뉘며 단선적인 특징을 보인다. 삼차사가 출발한 지점인 저승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길 위라는 변화의 공간이다. 삼차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인 사만이의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경유지인 길 위에서 멈춘다. 길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데 삼차사의 본분을 잊게 만드는 임무 이탈의 공간이며 인간에 의해 의도된 유혹의 공간이다. 사만이의 집은 임무수행의 공간에서 시왕 맞이곳의 공간으로 전환한다.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이의 여정은 복선적이다. 강림이의 여정이 복선적인 이유는 강림이의 임무과 관련성이 깊다. 강림이가 이승의 관장일 때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이승이며 저승의 관장일 때에는 반대로 나타난다. 여정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승과 저승 경계에 행기뭇이 있다는 점이다. 행기뭇은 저승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며 저승에 가지 못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주체들의 욕망은 이들의 신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욕망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정의되며 주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멩감본풀이〉에서 삼차사는 욕망을 성취하기에 앞서 방해 요소가 나타난다. 삼차사가 욕망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한 인물은 사만이다. 이 때 사만이는 적대자에 해당한다. 반면 강림이가 성취해야 할 욕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승관장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승 차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강림이는 이 두 임무를 완수하게 됨에 따라 그 보상으로 인간 차사에 임명된다.

삼차사와 강림이는 여러 모로 대조를 이룬다. 삼차사는 인간적인 면모가 강하고 강림이는 신의 면모가 강하다. 이러한 성격의 배경에는 본풀이의 기능이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시기상 〈차사본풀이〉가 차사의 신의 근본을 풀이한 설명담이므로 강림이가 차사의 원조격에 해당하고 삼차사는 그 이후의 존재들에 해당한다. 통시적으로 강림이는 저승 세계의 기강이 엄격했던 시기의 존재이고 삼차사는 그 이후 문란한 세태를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주체와 발신자의 관계로 보면 삼차사는 발신자의 가치체계에 어긋나는 가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강림이는 발신자의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진짜 주인공이다. 삼차사보다 강림이가 용맹성과 지혜가 뛰어난 점은 기존의 토착신의 모습에다가 중국에서 들어온 전쟁신의 모습이 습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저승차사의 성격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승신들의 위상과 대치된다. 특히 인간이 죽음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강림이와 같이 같이 규범적이고 위엄이 있는 저승 신격보다 나약하고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인간적인 신이 요구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체인 저승차사의 기능과 인간의 죽음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맹감본풀이〉에서는 인간 중심의 세속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고 〈차사본풀이〉에서는 신 중심의 초월적 사고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연구 범위를 넓혀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여 저승차사의 전모와 의미를 밝히는 것을 과제로 남긴다.

□ 참고 문헌 □

- 강정식·강소정·송정희(2008),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소.
- 강진옥(2010),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김치(金緞)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43, 비교민속학회, 187-225쪽.
- 권복순(2011), 「〈차사본풀이〉의 해설적 기능과 의미」, 『배달말』49집, 배달말 학회, 301-329쪽.
- 권복순(2013),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난 인물의 기능과 구술적 특징 -〈사만 이본풀이〉를 중심으로-」, 『어문학』119, 한국어문학회, 79-105쪽.
- 길태숙(2009),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문전 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冽上古典研究』29, 328-362쪽.
- 김형근·김현선(2008), 「제주도 무속신화〈차사본풀이〉연구 -함흥〈짐가제굿〉 무가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1-3, 한국학중앙연구원, 239-271쪽.
- 김태곤(1985), 『韓國의 巫俗神話』, 집문당.
- 류수열 외(2007), 『스토리텔링의 이해』, 글누림.
- 문무병(1998),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 자료집-』, 칠머리당보존회.
- 미하일 바흐쥰 지음,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1998), 『장편소설과 민중언어』창작과 비평사.
- 이능화(1991), 『朝鮮巫俗考』, 집문당.
- 이부영(1995),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분석심리학적 접근-』, 집문당.
- 이선영(2001),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 정재서(2010), 『이야기 동양신화』, 감영사.
- 조홍윤(1983), 『한국의 무』정음사.
- 최원오(1997), 「차사본풀이 類型 巫歌의 構造와 意味」, 『한국민속학』29, 223-246쪽
-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2009), 국립민속박물관.
- 현승환(2000), 「사만이본풀이 研究」, 『白鹿어문』16, 제주대 사범대 국어교육

배 달 말(54)

연구회, 159-179쪽.

현용준(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현용준·현승환(1996),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Abstract〉

**The function and meaning of Jeoseungchasa in Jeju shamanic myths
- with 〈Maenggambonpuli〉 and 〈Chasabonpuli〉 as the center -**

Kwon, Bok-soon(Gy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the death consciousness of human beings through the roles of Jeoseungchasa based on 〈Maenggambonpuli〉 and 〈Chasabonpuli〉, which are one of Jeju shamanic myths. ‘Maenggam’ and ‘Chasa’ are low-ranking divinities that take a person who reached to the allotted span of life to afterlife by a command of Siwang.

A journey of the main character in each Bonpuli is more influenced by a place than time. The journey of three ‘Chasa’ in 〈Maenggambonpul-i〉 has an unilinear character in the order of 1)afterlife-2)this world-3)afterlife. The ‘way’ is a link between this world and afterlife. It functions as a passing way which makes Jeoseungchasa deviate from duty. A house is a place that takes the dead, but it is changed to a place that greets Siwang.

Characteristics of Ganglim’s journey in 〈Chasabonpuli〉 are a frequent moving and foreshadowing. A reason why Ganglim’s journey means foreshadow is because he has to perform two duties as a director of this world and afterlife. And Haenggimot is the passing place of Ganglim’s journey. Haenggimot as a boundary between this world and afterlife is a place that Ganglim has to pass to perform his duty. A destination of desire in each Bonpuli is closely related to position. Three corrupt ‘Chasa’ failed to accomplish their desire. But on the other hand, honest Ganglim accomplished his desire. From the relation between subject and sender, the three ‘Chasa’ are ‘fake characters’ that vary from a value system and Ganglim is a ‘real character’ that corresponds to the value system. As a result, three corrupt ‘Chasa’ throw the existing afterlife into confusion and Ganglim corrects the order of indigested this world and afterlife.

The three ‘Chasa’ are in striking contrast with Ganglim. The three ‘Chasa’ have humanlike characters and Ganglim has a godlike character. We can find these background of characteristics from different functions of Bonpuli. 〈Chasabonpuli〉 is a folk tale that explains the basis of ‘Chasa’. So Ganglim represents an original class of the three ‘Chasa’ and the three ‘Chasa’ are figures

after Ganglim. From old times, Ganglim is the existence in afterlife that is extremely strict and the three 'Chasa' reflect a chaotic period after that time.

Ganglim's brave and wise personalities are well contrast with the personalities of three 'Chasa' that are easily tempted. Based on the shape of Ganglim, we can find the aspects of a god of war from China added on the figure of a indigenous god.

In conclusion, as a result of studying problems of the death of human beings through the functions of Jeoseunchasa, Saman could survive because <Maeng-gambonpuli> reflects human-centered secular thoughts and three brothers died and reincarnated because <Chasabonpuli> reflects god-centered transcendental thoughts.

Key words: three 'Chasa', Ganglim, low-ranking divinities, influenced by a place, failed to accomplish, accomplished his desire, secular thoughts, transcendental thoughts.

이 름 : 권복순

근무처 :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 소 : [660-300]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647번길, 18, 101호
(가좌동 연공아파트)

전 화 : 055) 759-8854, 010-5587-8854

이메일 : grara32@hanmail.net

논문 접수 : 2014년 4월 30일

심사 완료 : 2014년 6월 09일

게재 확정 : 2014년 6월 10일